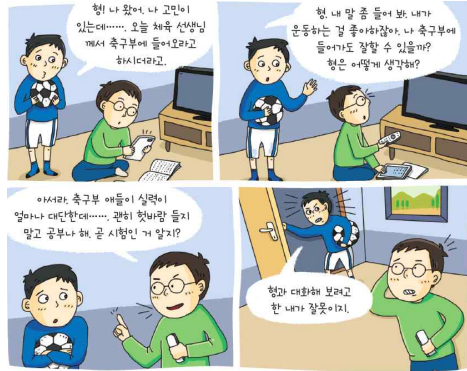


[1~2] 다음 만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

1. '동생'의 고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 
 ① 축구를 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?  
 ②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데 축구부에 들어가도 될까?  
 ③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 
 ④ 운동을 좋아하지만 축구부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?  
 ⑤ '체육 선생님'이 축구부 가입을 권유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?

2. '형'에게 필요한 대화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 
 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 
 ②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 태도  
 ③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 
 ④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태도  
 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

[3~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 
 우울한 표정의 민정, 옆에는 선생님이 서 있다. 민정을 바라보는 선생님.  
 선생님: 민정아!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, 무슨 일 있니?  
 민정: 아니예요. 아무 일도 없어요. 그냥 답답하고 그래서…….  
 선생님: ㉠(민정이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) 아니긴,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? 무슨 일인지 말해 봐. 혹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.  
 민정: 실은……. 옆 반에 도현이 있잖아요.  
 선생님: ㉡음, 계속 이야기해 봐.

민정: 도현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,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. 무시당한 것 같고,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속상해요.  
 선생님: ㉢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,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.  
 민정: (풀 죽은 목소리로) 네.  
 선생님: 민정이가 도현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보나.

민정: 네. 어젯밤에는 잠도 설쳤어요.  
 선생님: (안타까운 표정으로) 저런,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구나. ㉤그런데 민정아,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?

민정: 도현이요? 음…….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. 부끄러움도 많은 것 같고요.  
 선생님: 그렇지? 혹시 네가 음료수를 건넬 때, 다른 친구들도 있었니?  
 민정: 네. 청소 시간이었거든요. 아, 도현이 성격이라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음료수를 잘 받았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.  
 선생님: 맞아. 네 생각도 그래.  
 민정: 그럼 다음에 둘만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 봐야겠어요.

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,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민정.

(나)  
 소극적 들어 주기란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화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. “좀 더 얘기해 봐.”, “이렇게면?”과 같은 말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간다거나 적절하게 맞장구치는 방법이 있다.  
 적극적 들어 주기란 “그러니까 네 말은 ……구나.”와 같이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·정리하고 반영하여, 말하는 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.

3. (가)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?  
 ① '민정'은 '도현'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.  
 ② '선생님'은 '민정'을 걱정하며 말을 건네고 있다.  
 ③ '민정'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다.  
 ④ 선생님과의 대화로 '민정'은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.  
 ⑤ '민정'은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다가, '선생님'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었다.

4. (나)를 바탕으로 (가)의 ㉠~㉤을 알맞게 분류한 것은?

|   | 소극적 들어주기 | 적극적 들어주기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㉠, ㉡     | ㉢, ㉤     |
| ② | ㉠, ㉢     | ㉡, ㉤     |
| ③ | ㉠, ㉤     | ㉡, ㉢     |
| ④ | ㉡, ㉢     | ㉠, ㉤     |
| ⑤ | ㉢, ㉤     | ㉠, ㉡     |

5. ㉠~㉤ 중 <보기>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듣기 태도로 알맞은 것은?

<보기>  
 ·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임.  
 · 상대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임.

- ① ㉠      ② ㉡      ③ ㉢      ④ ㉤

6. (나)를 참고했을 때, '윤하'의 말에 대한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?

윤하: 이번에 노래 대회에 나가서 꼭 상을 타고 싶었는데 탈락하고 말았어. 내 나름대로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, 그렇지 않았나 봐. 가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.

|   |   |
|---|---|
| ① | 소극적 들어 주기 - “무슨 노래 대회?”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| 소극적 들어 주기 - (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듣는다.)               |
| ③ | 소극적 들어 주기 - “노래 대회에서 탈락해서 윤하가 많이 속상했구나.”      |
| ④ | 적극적 들어 주기 - “아이고. 좀 더 이야기해 줄래?”               |
| ⑤ | 적극적 들어 주기 - “좀 더 열심히 연습해 봐. 아직 대회는 많이 있을 거야.” |

★ 공감하며 듣기

|     |  |
|-----|--|
| 정 의 | 상대의 생각·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                 |
| 효 과 | 협력적 소통   |
| 방 법 | 1. 소극적 들어 주기: 집중하기, 격려하기<br>2. 적극적 들어 주기: 요약하기, 반영하기 |

7. 다음은 '황희 정승'의 일화이다. 만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

'황희 정승'이 두 사람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한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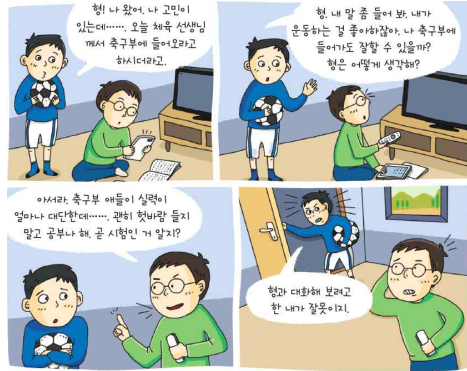
- ① 귀찮았기 때문에
- ② 갈등을 조장하기 싫었기 때문에
- ③ 사람보다 짐승을 더 소중히 했기 때문에
- ④ 제사와 관련된 법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
- ⑤ 두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렸기 때문에

8. '민재'의 말에 대해 공감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민재: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,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. 어떡하지?

- ① 수덕: 그랬구나. 너무 속상했겠다.
- ② 경희: 괜찮아. 열심히 했으면 다음에 잘 볼 수 있을 거야.
- ③ 혜영: 나도 시험 못 봤을 때 슬펐는데, 너도 지금 그럴겠구나.
- ④ 선희: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네가 멋지다고 생각해. 그러니 기운 내.
- ⑤ 솔: 아이참,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진다. 민재야,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!

[1~2] 다음 만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

2. '동생'의 고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㉠

- ① 축구를 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?  
 ②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데 축구부에 들어가도 될까?  
 ③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 
 ④ 운동을 좋아하지만 축구부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?  
 ⑤ '체육 선생님'이 축구부 가입을 권유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?

2. '형'에게 필요한 대화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㉠

- 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 
 ②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 태도  
 ③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 
 ④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태도  
 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

[3~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 
 우울한 표정의 민정, 옆에는 선생님이 서 있다. 민정을 바라보는 선생님.  
 선생님: 민정아!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, 무슨 일 있니?  
 민정: 아니에요. 아무 일도 없어요. 그냥 답답하고 그래서.....  
 선생님: ㉠(민정이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) 아니긴,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? 무슨 일인지 말해봐. 혹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.  
 민정: 실은..... 옆 반에 도현이 있잖아요.  
 선생님: ㉡음, 계속 이야기해 봐.

민정: 도현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,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. 무시당한 것 같고,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속상해요.

선생님: ㉢그러니까 네가 용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,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.

민정: (풀 죽은 목소리로) 네.

선생님: 민정이가 도현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보나.

민정: 네. 어젯밤에는 잠도 설쳤어요.

선생님: (안타까운 표정으로) 저런,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구나. ㉣그런데 민정아,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?

민정: 도현이요? 음.....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. 부끄러움도 많은 것 같고요.

선생님: 그렇지? 혹시 네가 음료수를 건넬 때, 다른 친구들도 있었니?

민정: 네. 청소 시간이었거든요. 아, 도현이 성격이라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음료수를 잘 받았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.

선생님: 맞아. 네 생각도 그래.

민정: 그럼 다음에 둘만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 봐야겠어요.

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,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민정.

(나)

소극적 들어 주기란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화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. “좀 더 얘기해봐.”, “이렇게하면?”과 같은 말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간다거나 적절하게 맞장구치는 방법이 있다.

적극적 들어 주기란 “그러니까 네 말은 .....구나.”와 같이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·정리하고 반영하여, 말하는 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.

3. (가)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? ㉠

- ① '민정'은 '도현'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.  
 ② '선생님'은 '민정'을 걱정하며 말을 건네고 있다.  
 ③ '민정'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다.  
 ④ 선생님과의 대화로 '민정'은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.  
 ⑤ '민정'은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다가, '선생님'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었다.

4. (나)를 바탕으로 (가)의 ㉠-㉣을 알맞게 분류한 것은? ㉠

|   | 소극적 들어주기 | 적극적 들어주기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㉠, ㉡     | ㉢, ㉣     |
| ② | ㉠, ㉢     | ㉡, ㉣     |
| ③ | ㉠, ㉣     | ㉡, ㉢     |
| ④ | ㉡, ㉣     | ㉠, ㉢     |
| ⑤ | ㉢, ㉣     | ㉠, ㉡     |

5. ㉠-㉣ 중 <보기>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듣기 태도로 알맞은 것은? 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보기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임.              |
| · 상대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임. |

- ① ㉠      ② ㉡      ③ ㉢      ④ ㉣

6. (나)를 참고했을 때, '윤하'의 말에 대한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? ㉠

윤하: 이번에 노래 대회에 나가서 꼭 상을 타고 있었는데 탈락하고 말았어. 내 나름대로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, 그렇지 않았나 봐. 가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.

|   |  |
|---|--|
| ① | 소극적 들어 주기 - “무슨 노래 대회?”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| 소극적 들어 주기 - (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듣는다.)              |
| ③ | 소극적 들어 주기 - “노래 대회에서 탈락해서 윤하가 많이 속상했구나.”     |
| ④ | 적극적 들어 주기 - “아이고. 좀 더 이야기해 줄래?”              |
| ⑤ | 적극적 들어 주기 - “좀 더 열심히 연습해봐. 아직 대회는 많이 있을 거야.” |

★ 공감하며 듣기

|     |  |
|-----|--|
| 정 의 | 상대의 생각·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                 |
| 효 과 | 협력적 소통   |
| 방 법 | 3. 소극적 들어 주기: 집중하기, 격려하기<br>4. 적극적 들어 주기: 요약하기, 반영하기 |

7. 다음은 '황희 정승'의 일화이다. 만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

'황희 정승'이 두 사람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한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? ㉠

- ① 귀찮았기 때문에  
 ② 갈등을 조장하기 싫었기 때문에  
 ③ 사람보다 짐승을 더 소중히 했기 때문에  
 ④ 제사와 관련된 법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 
 ⑤ 두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렸기 때문에

8. '민재'의 말에 대해 공감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㉠

민재: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,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. 어떡하지?

- ① 수덕: 그랬구나. 너무 속상했겠다.  
 ② 경희: 괜찮아. 열심히 했으면 다음에 잘 볼 수 있을 거야.  
 ③ 혜영: 나도 시험 못 봤을 때 슬펐는데, 너도 지금 그럴겠구나.  
 ④ 선희: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네가 멋지다고 생각해. 그러니 기운 내.  
 ⑤ 솔: 아이참,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진다. 민재야,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!